

장흡충 이야기

腸 吸 虫

(1) 극구흡충 (棘口吸虫)



李 純 炯

지난 10여년간에 우리나라의 회충, 구충, 편충같은 주요 기생충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는 바이지만, 이런 결과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땅의 기생충학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집단관리 실무를 직접 담당한 기협직원들의 피와 땀의 노고가 영킨 보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생충들을 없애고 마음을 깨달지도 못하고 이제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필요없다고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기생충감염은 용수철과 같아

서 그 퇴치에 힘을주는 동안은 움추러들어 있으나 힘을 빼면 다시 튀어올라 창궐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사실은 고금동서의 역사상에 많은 기록으로 남아있어 우리의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기생충이 없는 나라가 되었느냐하면 사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멀다. 기생충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된 까닭은 옛부터 우리나라에 창궐하던, 이른바 토양매개성 연충(土壤媒介性 蠕虫)이라는 흙으로 부터 옮겨오는 회충, 구충등이 줄어들었다는 것 뿐이고, 그나마 도시지역이나 인구가 밀집한 읍·면 일부에서 그렇지, 섬이나 산골, 해안의 외딴 지역에는 아직도 높게 나타난다. 또 연령층으로 볼때 그동안 집단관리



의 대상이 되어온 초·중·고 학생들에게서는 놀랄만큼 줄어든 대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학·연령층의 어린이나 어른들에게서는 아직도 높다.

작년도에 보사부·기협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기생충감염률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아직도 기생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인구의 40%가 넘는다. 다만 회충감염만은 13%로 낮아져 있었다. 이 통계숫자는 10년전의 기생충감염률 90%, 회충감염률 약 50%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웃 일본이나 대만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감염률이다. 그리고 회충감염 0%까지 내리려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기생충 관리를 계속하여도 10년쯤의 시일이 더 필요하리라 본다.

다시 말해서 설부른 낙관은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고, 이때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기생충 관리에 힘쓰면 지금 남아있는 잔적(殘敵)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나게 마련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태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기생충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기생충이 워낙 많았을 때에는 회충, 구충같은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생충에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이런 문제가 차츰 해결이 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생충을 찾는 것이 여러나라의 관례이고 또 기생충 판리를 해오는 동안에 쌓인 경험 및 기술과 지식이 새로운 기생충을 찾아내는 힘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난(欄)에서 소개될 장흡충(腸吸虫) 감염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기생충들이라 하겠다. 장흡충이라 하면 젓먹이 동물이나 사람의 창자에 기생하는 디스토마 종류를 통틀어 일컫는데, 예를 들면 요꼬가와흡충(横川吸虫)은 비교적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장흡충이다. 그동안 디스토마(吸虫)하면 간흡충이나 폐흡충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큰 보건문제였던 까닭에 요꼬가와흡충조차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고, 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 1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요꼬가와흡충이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없었느냐하면 그렇지 않고 옛날부터도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그 알(虫卵)의 모양이 간흡충과 흡사하여 모두 간흡충으로 통체처리가 되었을 것이 추측된다. 따라서 이런 총란들을 좀더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고 추적(追跡)하면 간흡충이 아닌 요꼬가와흡충을, 또는 요꼬가와흡충이 아닌 다른 새로운 흡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필자가 속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및 풍토병

연구소에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해왔는데 그 결과 요꼬가와흡충을 비롯하여 Echinostoma(棘口吸虫), Heterophyes(異形吸虫), Pygidiopsis, 그리고 Fibricola 등 생소한 이름의 여러 가지 장흡충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이들 장흡충은 원칙적으로 그 기생부위가 사람의 창자가 되나 외국에서는 총체나 총란이 창자 이외에 뇌, 척수같은 중추신경계 및 심장근육에 들어가 병을 일으킨 경우도 있어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기생충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가 속한 연구팀은 이들 장흡충의 인체기생예 뿐 아니라 이들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 즉 보유숙주(保有宿主) 및 중간숙주(中間宿主)를 찾아내고 그 지리적 분포, 치료제의 개발, 예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요꼬가와흡충 이후 처음으로 발견한 장흡충은 Echinostoma(棘口吸虫)의 1종인데, 이에 감염된 최초의 예는 경기도 화성군 주민의 검변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검변 중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총란을 발견하고 그 대변 입자를 찾은 결과 60세 먹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자세히 증상을 물어 보았더니 약 1년전부터 거의 한달에 2-3일정도 배가 아팠었고 구역, 구토가 있었으며 소화가 안되고 설사가 났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 흔히 쓰는 구충제로

치료를 하였더니 최종은 치료가 되었으나 이 이상한 증란은 그후에도 대변에 계속 나타났다. 심상치 않은 기생충, 특히 장흡충의 일종이라 잠정적으로 진단하고 다시 비치오늘이란 치료제로 치료를 하였더니 약 2시간만에 설사대변과 함께 8마리의 Echinostoma(棘口吸虫)을 배출하였다. 이 충체는 길이가 약 1cm, 폭이 3mm가량 되는 것이었고, 자세히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사람에서 발견된 종류임이 밝혀졌다.

이 기생충은 1964년 서울의대 연구팀이 집쥐에서 발견한 바 있었기에 다시 집쥐를 잡아 조사한 결과 집쥐가 보유숙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제2중간숙주로 외국에서 알려진 우렁이(貝類), 울챙이, 개구리, 도롱뇽, 미꾸라지등을 수집하여 조사

하였더니 미꾸라지에서만 애벌레(被囊幼虫)가 발견되었고 다른 동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대규모로 본격적 조사를 하면 미꾸라지 이외의 다른 동물에서도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미꾸라지에서 얻은 애벌레를 축취기에 먹인 결과 약 한달후 성충(成虫)을 얻을수 있었다. 따라서 미꾸라지가 제2중간숙주임을 확인한 셈이다.

이 기생충이 우리나라 집쥐에 흔한 점, 미꾸라지가 감염원이라는 점등으로 미루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찾으면 더 많은 감염자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특히 기협 검사요원 여러분들은 흔히 보지 못하던 증란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

〈필자=서울의대 기생충학교수·

대한기생충학회 회장·의박〉

겨울철의 花草관리



튤립이나 크로커스는 한겨울에 흙 덮기만 해도 동사를 하지 않으나 수선화는 앞뿌리를 심은 구덩이의 표토 위에 짚을 깔아 비닐을 덮고 그것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흙으로 주위를 둘러두는 것이 좋다.

가을에 심은 팬지와 메이지등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묘목이 자란 곳을 중심으로 반달모양이 되게 조각낸 대나무를 둥글게 세워 지주삼아 비닐을 쳐주고 그 속에서 겨울을 나게 하면 다음해 이른 봄에 많은 꽃을 볼 수 있다.